

# “곁에 있는 사람 향해 마음 넓히는 게 봉사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2019년 11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 주최로 제31회 아산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아산상 대상을 수상한 이석로(56) 방글라데시 꼬람돌라병원장은 “봉사는 먼 곳이 아닌,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 우리 마음을 넓혀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994년부터 25년간 방글라데시에서 주민들의 질병 치료에 힘쓰고, 간호학교를 설립하는 등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해왔다. 연간 8만 명의 저소득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했고, 외부 지원 없이도 병원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또 교육 기회가 없어서 직장을 갖기 힘든 방글라데시 여성들을 위한 간호학교를 설립해 자활을 도왔고, 장학사업 등도 해왔다.

이석로 원장은 25년간 한결 같이 의료봉사를 해온 힘의 원천에 대해 “봉사라는 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상대에게서 얻는 것이 또 있다”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는 마음이 전달되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 어느새 25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 원장 외에도 소록도 한센인 의료봉사로 시작해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지 주민의 질병 치료와 교육, 지역개발을 위해 42년간 헌신한 김혜심 약학박사(74)가 의료봉사상을 받았다. 아프리카 남부의 작은 나라 스와질란드에서 25년째 봉사하고 있는 김혜심 박사는 “스와질

란드는 평균수명이 38세이고, 에이즈 발병률이 매우 높은 나라”라면서 “국경지대와 난민촌, 광산촌 등 무의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순회 의료봉사를 하면서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46년간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수원, 전북 완주, 전남 담양 등 네 곳에서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무의촌 노인의 편안한 여생부터 임종과 장례까지 책임져온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대표 이상옥 헬레나 수녀)는 사회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상옥 헬레나 수녀(52)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큰 상을 받아 많이 놀랐다”면서 “앞으로도 종교와 지역에 상관없이 소외되고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의식주 해결만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잘 보살펴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아산상 상금은 대상이 3억원,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은 각각 1억 원이다. 아산재단은 이날 복지실천상과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 수상자 9명에게도 각각 상금 3천만 원을 시상하는 등 6개 부문에서 12명(단체 포함)을 선정해 총 7억7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친이나 수상자들이 여유가 있어서 남들을 도운 것이라기보다는 인류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정신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관련내용 8~23p). 📖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이석로 방글라데시 꼬람돌라병원장에게 제31회 아산상 대상을 수여하고 함께 포즈를 취했다.